

# 이원정 “팀원들과 합 맞춰 연패 끊고 페퍼스 답게 웃고 싶어”



9개월만에 복귀전...“너무 떨려 경기 기억 안나”  
조이·시마무라 위주 공격 벗어난 다양한 패턴 필요

“너무 많이 떨려서 어떻게 경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다”  
긴 공백 끝에 코트로 돌아온 페퍼스의 세터 이원정은 복귀전 소감을 밝혔다. 이원정은 지난 17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IBK기업은행과의 맞대결에서 3세트 중반 교체 멤버로 들어갔다. 그는 부상으로 지난 3월 18일, 시즌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코트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는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를 뛰고 (무릎) 부상으로 계속 코트를 떠나 있었다. 경기나 연습도 많이 못 해 더 긴장됐다”고 전했다.  
긴 재할 끝에 복귀했지만 아직 팀 연패는 끊지 못했다.  
페퍼스는 이날 세트스코어 0-3(20-25 14-25 22-25)으로 패하며 7연패에 빠졌다.  
경기 흐름만 놓고 보면 1, 2세트 초반 리시브가 흔들리며 공격 전개가 끊기며 분위기가 완전히 넘 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3세트 중반, 이원정이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했다.  
박사랑을 대신해 투입된 이원정은 득점에 기여하는 등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던 경기에서 팽팽한 싸움을 이끌었고,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부상으로 공백이 있었던 게 무색할 만큼 빠른 템포로 활약한 이원정은 “공격수들이 잘 때려줘서 그때부터는 ‘즐거자’는 생각으로 뛰어나기만 했다”며 “복귀전인데도 시마무라 선수와 잘 맞아서 다행이었다. 워낙 잘 때리는 공격수라 어느 정도만 올려 줘도 잘 때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마침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세터의 시선에서 본 ‘승부처’도 분명했다.  
그는 “(코트) 바깥에서 볼 때 상대 팀이 조이 쪽에 블로킹 견제를 많이 준다고 많이 느꼈다”며 “레프트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게 후반에 따라

갈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다만 동점을 만들고도 3세트를 22-25로 내주며 반전은 완성하지 못한 게 아쉽다.  
이원정은 “판정으로 아쉬웠던 장면은 있었지만, 판정 이후 냉정하게 흐름을 다시 찾아와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원정이 짚은 팀의 숙제는 ‘패턴’이었다.  
그는 “1라운드 때는 조이와 시마무라 위주의 공격 활로가 많았는데,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상대가 저희에 대한 대비가 잘되어있더라”며 “그래서 패턴 플레이를 바꿔보려고 노력했다. 상대가 흔들리면 우리 공격수들도 잘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더 다양한 플레이와 정교함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직은 ‘합’을 더 많이 맞춰야 한다.  
이원정은 “몸에 대한 적응 시간도 필요해 팀원들과 합을 많이 맞추지 못했다. 작년에 맞춰본 기존 선수들은 괜찮았는데 새로 들어온 선수들과는 맞춤 시간이 거의 없었다”며 “이제부터 팀원들과 합을 더 맞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남은 시즌 목표는 분명했다.  
이원정은 “부상 때문에 항상 힘들고 좌절도 많이 했다. 남은 시즌 코트에서 많은 모습 보여드리고 1라운드 때의 페퍼스답게 웃으면 좋게, 연패를 끊고 싶다”고 전했다.  
개인적인 목표로 “세터로서는 세트 성공률을 올리고 싶다. 공격수들이 때리기 좋은 공을 토스하는 게 목표”라며 “우리 팀이 볼 배구를 잘 수 있는 전력이라고 믿는다. 광주에도 봄이 찾아오면 좋겠다”고 희망을 전했다.  
한편, 장소연 감독은 이원정의 교체 투입에 대해 “이번 시즌 첫 경기다 보니까 나름의 긴장도, 부담도 있었을 텐데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잘 여여줬다”고 설명했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페퍼스의 세터 이원정이 지난 17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V리그 3라운드 IBK기업은행과의 맞대결을 통해 부상 복귀전을 치렀다.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아웃사이드 히터 박은서와 하이파이프를 하고 있는 이원정(오른쪽). (KOVO 제공)

## 리시브 흔들린 페퍼스...기업은행에 셋아웃 패배 ‘7연패 늪’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IBK기업은행에 셋아웃 패배를 당하며 연패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페퍼스는 지난 17일 홈에서 열린 2025-2026 V리그 3라운드 IBK기업은행과의 맞대결에서 세트스코어 0-3(20-25 14-25 22-25)으로 패했다. 7연패를 당한 페퍼스는 6승 9패(승점 17)로 결국 리그 6위로 밀려났다.  
3세트 중반, 부상에서 돌아온 이원정-하혜진을 동시에 투입하며 라인업에 큰 변화를 줬지만 경기 흐름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1세트, 페퍼스는 아웃사이드 히터에 고에림-박정아를 선발로 앞세워 초반 접전을 펼쳤다.  
고에림의 킥오픈으로 14-14의 팽팽한 승부가 펼쳐졌지만 기업은행이 먼저 세트포인트에 도달했다. 이어 리시브 실패로 1세트를 내줬다.  
2세트 초반 시마무라가 살아나며 5-5 동점을 만들었고, 조이도 공격에서 존재감을 보였지만 범실이 이어지며 내리 4점을 내줬다.  
전하리를 투입하는 등 변화를 줬으나 리시브가

라인업 변화에도 패...6위 추락  
내일 흥국생명과의 원정 경기

흔들리면서 추격 흐름이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8-17까지 벌어진 점수 차를 쉽게 좁히지 못한 페퍼스는 결국 14-25로 2세트를 내주며 수세에 몰렸다.  
3세트에서 페퍼스는 라인업에 변화를 주며 반전을 노렸다.  
아웃사이드 히터에는 이한비, 미들블로커에는 그간 부상으로 결장했던 하혜진을 기용한 가운데 경기 초반 좋은 흐름을 보였다.  
하혜진의 연속 서브에이스로 기업은행 리시브를 흔들 페퍼스는 7-3까지 달아났으나, 집중력 저하와 범실이 겹치며 순식간에 7-7 동점을 허용했다. 이후 조이의 공격 득점에 심판이 ‘포히트’를 선언했고, 판독 결과 ‘리플레이’로 정정되면서 추가 득점 없이 끝났다.  
재개된 랠리에서 흐름이 기업은행 쪽으로 넘어갔다. 연속 실점으로 7-14까지 벌어지자 페퍼스가 세터 교체로 승부수를 띄웠다.  
부상에서 돌아온 이원정을 투입하며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토스 템포가 빨라지면서 박

은서의 득점, 조이의 백어택·오픈, 이한비의 블로킹 등이 연달아 나오며 페퍼스는 20-20 동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막판 고비에서 한 점이 부족했고, 22-25로 3세트도 내주며 경기를 마쳤다.  
페퍼스는 리시브 불안과 2단 연결이 매끄럽지 않았고, 양질의 토스에 대한 아쉬움이 경기 내내 따라붙었다.  
장소연 감독은 “세트마다 초반 리시브에서 흔들리다 보니 치고 나가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다 계속 준비해야 할 부분”이라며 리시브 회복을 과제로 꼽았다.  
이어 장 감독은 리플레이 판정에 대해서 “데드가 되고 우리 쪽에서 득점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며 아쉬움을 이야기했다.  
이날 페퍼스는 조이 16점, 시마무라 11점이 분전했지만 연패 탈출에는 실패했다.  
반면 기업은행은 빅토리아를 중심으로 높은 타점 공격을 살려 확실한 득점 루트를 만들며 6위에서 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페퍼스는 20일 오후 2시 흥국생명과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다. 볼 배구를 위해 페퍼스가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 안세영, 33분 만에 완승...월드투어 파이널스 4강행

오늘 야마구치와 3차전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이 ‘왕중왕전’ 격인 월드투어 파이널스 조별리그에서 4강 진출을 확정하고 단일 시즌 최고 승률을 기록했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18일 중국 항저우의 올림픽스포츠헤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 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2025 여자 단식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일본의 미야자키 도모카(월드투어 랭킹 9위)를 경기 시작 33분 만에 2-0(21-9 21-6)으로 완파했다.  
시즌 15개 대회에 출전한 안세영은 이제까지 총 69경기를 치러 65승을 거두고 승률 94.2%를 기록했다.  
이는 60경기 이상 출전한 여자 단식 선수 중 단일 시즌 역대 최고 승률이다.  
경기 내용은 일방적이었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2-3에서 3연속 득점으로 흐름을 탄 뒤 내리 7점을 쓸어 담으며 기선을 제압했고 21-9로 첫 게임을 이겼다.  
2게임은 더 압도적이었다. 안세영은 시작과 동시에 6점을 연속으로 따내며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했고, 미야자키에게 단 6점만 허용하며 경기를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1차전에서 인도네시아의 푸트리 쿠수마와 라르다니를 2-1로 꺾은 데 이어 2승을 먼저 챙기며 조 1위로 올라섰다.  
2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와 승수는 같지만,



게임 점수 득실에서 32-19로 앞선다.  
올 시즌 벌써 10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할 경우 일본 남자 단식 선수 모토마 겐토와 단일 시즌 최다 우승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된다.  
안세영은 19일에 열리는 3차전에서 월드투어 랭킹 4위 야마구치를 상대한다.  
/연합뉴스

## 여자바둑 ‘김은지 시대’ 개막

최정 꺾고 올해 5관왕

한국 여자 바둑에 ‘김은지 시대’가 활짝 개막했다.  
김은지(18) 9단은 18일 성동구 마장로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0기 하림배 프로여자국수전 결승 3경기 최종 3국에서 최정(29) 9단에게 179수 만에 흑 불계승했다.  
이로써 김은지는 종합 전적 2승 1패로 최정을

따돌리고 처음 하림배 우승컵을 차지했다.

11월 하순부터 해성 여자기성전, 오정원배 세계여자바둑대회, 난설현배에 이어 하림배까지 4개의 타이틀을 쓸어 담은 김은지는 올해에만 5개의 타이틀을 수확하며 여자바둑의 새로운 1인자로 입지를 굳혔다.  
김은지는 최정과 상대 전적도 11승 21패로 좁혔다.  
올해 전적만 따지면 6승 5패로 앞섰다.

또 최정과 타이틀 매치 전적은 3승 5패가 됐다. 올해 결승 매치는 2승 1패로 앞선다.  
최종 3국에서 흑을 잡은 김은지는 중반까지 팽팽한 균형을 이어가다 우변 백돌을 공격하며 확실한 우세를 만들었다.  
불리해진 최정은 강수를 연발하며 반전을 노렸으나 오히려 백 대마가 포획되자 결국 돌을 던졌다.  
하림배 프로여자국수전 우승 상금은 3000만원, 준우승 상금은 1000만원이다.  
제한 시간은 시간 누적(피서) 방식으로 각자 30분에 추가시간 30초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연주회

1229 여객기 참사 추모음악회 '진혼, 기억'

일시 : 2025-12-26(금) 19: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401

**문의 062)613-8233**

광주예술의전당 특별기획연주회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음악회 '179명의 이름을 기억하며'

일시 : 2025-12-27(토)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